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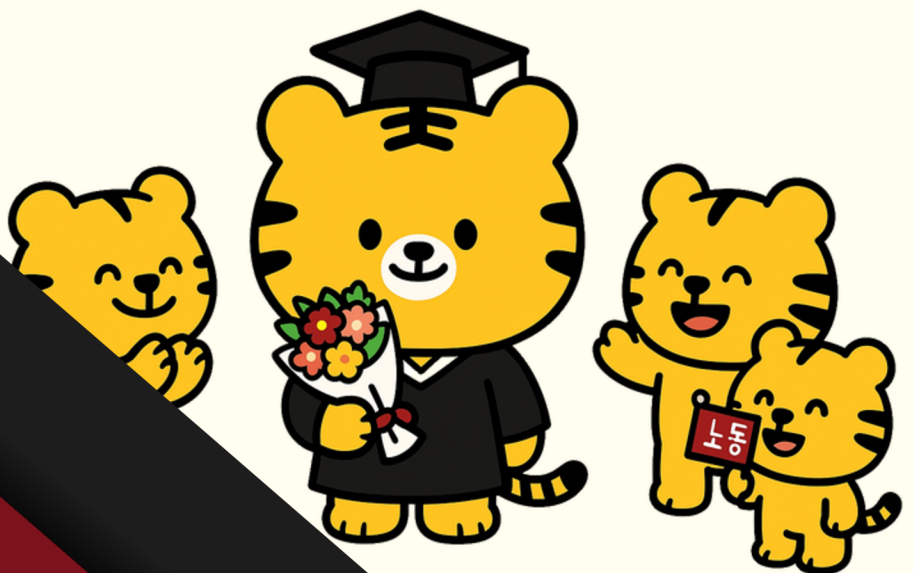
vol.4

졸업생 인터뷰

졸업한 선배들의 이야기

Presented by

33대 총학생회 홍보부



Contents

33기 정봉수

43기 이경무

50기 임보라

51기 정민호

51기 이준호

52기 김윤정

54기 황복연

55기 김철민

55기 강경필

56기 박진

56기 박소현

노동법학과 33기 정봉수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정봉수(58세)입니다. 저의 직업은 공인노무사이고, 강남노무법인을 2005년에 설립하여 주로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을 상대로 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 가을 학기에 노동대학원 33기 노동법학과로 입학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 졸업하였습니다. 늦게 다시 시작한 공부이지만, 참으로 인생을 값지게 보낸 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노동대학원 덕분에 많이 성장했고,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 재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수업은?

생각해보니, 기억에 남는 추억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노동법의 대학자이신 김형배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수업을 들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졸업하고도 추가적으로 김형배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까지 들었습니다.

둘째로, 졸업논문 지도교수님은 박종희 교수님이셨고, 논문심사는 박지순, 하경호 교수님이 하셨습니다.당시, 논문 주제가 '원어민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내용인데, 박지순 교수님이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박종희 교수님의 얼굴을 붉어졌고, 논문 통과가 어렵게 되는 시점에, 하경호 교수님이 현업에서 찾은 소중한 경험을 살린 점이 노동대학원 학생들의 남다른 점이라고 저를 두둔하면서, 겨우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수업이 끝나고 늦게 안암역 뒷골목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박종희 교수님, 박지순 교수님, 그리고 동기분들과 즐거운 시간 가졌고, 지하철 막차를 놓치지 않게 아슬아슬하게 시간 맞추었던 것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넷째로, 노동법학과 동기들과 중국 북경으로 졸업여행을 갔다 왔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졸업하고도 1년에 한번 씩은 만났는데, 코로나사태 이후부터는 만나지 않고 있어 아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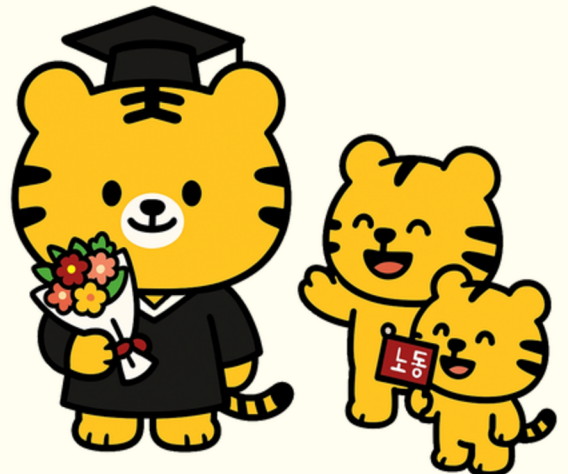
3. 다시 돌아가면 이것만큼은 꼭 했을 것 같다!

벌써 졸업 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많이 잊혀졌지만, 지금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몇 가지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2가지입니다.

첫째로, 좀 더 33기 동기들과 수업 외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나고 나니 대학원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둘째로, 훌륭한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공식적인 자리 외에 사적인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간다면, 동기 원우들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 더 많이 교류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과 더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제지간의 깊은 정을 쌓고 싶습니다.



4. 현재 하고 계신 일과 노동원 경험이 어떻게 이어졌나요?

저는 노무사로 회사 자문을 위주로 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수업은 주제발표 시간이 많습니다. 발표 준비 과정을 통해서 특정 문제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이를 정리하여 내 자료로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업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노무 컨설팅 하는데 철저한 준비와 다각적인 시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5.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노동대학원에서 만난 원우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 밖에 없는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좀 더 잘 알게 되면,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인데 말입니다. 같이 입학한 동기분들이 30명인데, 노동법학과 동기 외에는 잘 알지 못하고 지냈던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노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원우님들은 동기분들 모두와 친하게 지내시고, 친한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은 인생을 두배로 값지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과정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업 중단하지 마시고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대학원 원우님, 파이팅 하세요.



노동법학과 43기 이경무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갈등전환센터 조직갈등연구소 소장과 노무법인 신유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를 나와 독립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진중공업, LG전자, 그리고 배달의민족 계열사인 딜리버리IN에서 경영지원실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조직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조직 내 갈등 해결과 인사노무 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 재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수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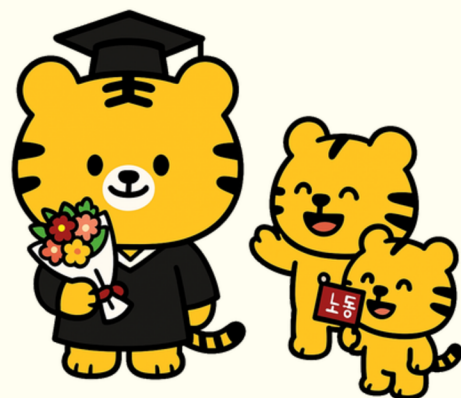
노동대학원 재학 중 모든 수업에서 소중한 인사이트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경효 교수님의 수업은 진중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의 깊은 내공을 느낄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박지순 교수님께서도 노동법과 실무를 연결해서 사고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석사 논문 지도를 해주셔서 우수 논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선희 교수님의 수업은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집중도 높게 임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각 교수님만의 독특한 수업 방식을 통해 노동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3. 다시 돌아가면 이것만큼은 꼭 했을 것 같다!

현재 노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켜보며 많은 부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재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미처 참여하지 못했던 여러 경험과 활동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중한 추억들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특히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여 동기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아보니 재학 시절의 네트워킹과 다양한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런 기회들을 놓친 것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4. 현재 하고 계신 일과 노대원 경험이 어떻게 이어졌나요?

제 커리어는 노동대학원 입학 전과 후로 나누어질 정도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대학원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들을 현재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대학원 동기와 선후배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들의 모임인 '인사노무네트워크'를 통해서 노동대학원 학생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노동대학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현장 실무 경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문성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었고, 소중한 인연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회사 일을 하면서 동시에 주중에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결하며,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만큼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입니다. 노동대학원 테니스 모임(KLTC)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계시겠지만,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커리어와 인생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는 동기들과의 인연도 소중히 여기시길 응원합니다.



노동복지 정책학과 50기 임보라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50기 졸업생 임보라입니다. 재학 중에는 제29대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많은 원우들과 학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졸업 이후 현재까지 총교우회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의 불합리한 차별·분쟁 예방(ADR) 및 원·하청 상생협력 등 다양한 고용노동부 정책 사업을 연계하고 있으며, 대표 직무는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의 판정례 등을 토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근로조건,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 및 예방하고 있습니다.

2. 재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수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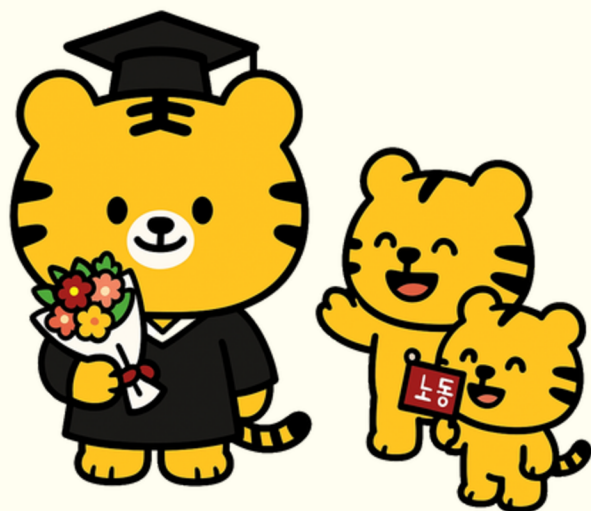
노대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모아 학교와 소통하고, 또 여러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50기 동기 원우님들과 함께 50기 상조회를 최초로 만들고, 발전기금을 모아 5명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던 선한 영향력은, 동기들과 함께 나눈 소중한 경험이자 인생에서 저에게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3. 다시 돌아가면 이것만큼은 꼭 했을 것 같다!

총학생회 활동을 하느라 부족한 시간으로 생각보다 다양한 학술대회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학문적인 경험도 더 깊이 쌓아보고 싶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노동관련 연구센터를 기획하고 만들어 학술 연구자들과 함께 학술 결과를 통해 학교 외부 위상과 발전을 위해 더욱 기여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4. 현재 하고 계신 일과 노대원 경험이 어떻게 이어졌나요?

현재 현업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의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만들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기업에 다양한 정책제도를 지원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대원에서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학우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학교 측과 소통했던 경험이, 실제 업무의 문제 해결과 전략 수립 과정에서 기반이 되었고 노대원에서의 학문적 지식과 리더십 경험이 서로 맞물려, 분쟁 현장을 이해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5.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여러분, 노대원에서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수업과 과제도 중요하지만, 꼭 다양한 학생회 및 동호회 경험에도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 가정, 학업의 균형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학교 활동은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큰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저 또한 그때는 매 순간 버겁고 힘들었지만, 현재의 시간을 잘 지켜 내신다면 졸업 이후의 삶도 잘 지켜 줄 거라 믿습니다. 어렵게 입학を決심하신 노대원의 시간 만큼은 느리게 걷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온전히 나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인력관리학과 51기 정민호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관리학과 51기 졸업생 정민호입니다. 논문 트랙을 선택해 졸업 논문을 준비하며 학업을 마쳤고, 현재는 KCC에서 HR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학문적 탐구와 실무 경험을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재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수업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논문 트랙을 선택해 졸업 논문을 준비했던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은 아니었지만 석사 이후의 학문적 여정을 고려해 쉽지 않은 길에 도전했고,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 중 휴학을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노동법학과 동기의 “지금 고민해도 결국 똑같다, 같이 끝내자”라는 응원이 큰 힘이 되어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서는 김영신 교수님의 강의를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독서와 반복된 발표 준비로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가장 큰 배움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니다. 졸업 후에도 교수님의 특강을 청강한 경험이 있는데, 마침 회사에서 제도를 도입하던 시기와 맞물려 실무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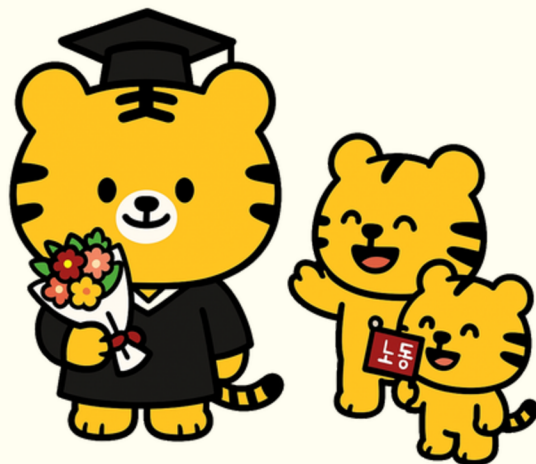
3. 다시 돌아가면 이것만큼은 꼭 했을 것 같다!

저는 대학원 입학 후 네 번의 면접 끝에 합격했고, 그만큼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학업과 학생회, 네트워킹까지 최선을 다했기에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회 활동을 두 기수에 걸쳐 했는데, 두 번째 활동은 논문 준비로 인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외에는 학업도, 활동도, 인간관계도 충분히 즐기며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4. 현재 하고 계신 일과 노대원 경험이 어떻게 이어졌나요?

지금은 HR 제도 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도 개선은 타사 사례 연구와 현업 담당자와의 소통이 필수입니다. 대학원에서 다양한 업계의 선배, 동기, 후배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얻었던 인사이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민하는 제도가 다른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 도입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선배들에게 바로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죠. 이런 네트워킹과 학문적 토대가 지금도 제 업무에 큰 자산이 되고 있으며, 졸업 이후에도 여전히 연락을 이어가며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5.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원우님들께서는 각자 다른 목표로 대학원에 오셨을 겁니다. 논문이든 수업이든 네트워킹이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일과 가정, 학업을 병행하기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인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큰 자양분이 됩니다.

저에게 대학원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배움은 물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경험이 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HR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기회를 기다리기보다 만들어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내어 입학하고, 적극적으로 학문과 사람을 경험한다면 분명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전문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력관리학과 51기 이준호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자기소개였는데, 사실 이 질문이 제게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원우님들께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끔 노대원 단톡방에서 아침 인사를 드리는 ‘낭만원우’ 이준호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별명은 황복연 원우님(학생회장님)이 지어주신 것인데, 낭만적이라고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은 편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소개가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가 흔히 하는 소개가 대부분 표면적인 소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직업, 나이, 출신학교 등등이 나를 설명해 주는 정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일까? 이런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저는 주말에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저씨와 다를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내가 정말 즐기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정말 즐기는 것이라기보다 의식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것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백세 인생의 절반을 살고 있고, 책 읽기를 좋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아노를 치고 싶어 깨작깨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깨작 운동도 하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꾸준히, 오래도록, 지치지 않고입니다. 뭘 특별히 잘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들이면 언젠가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조금 더 표면적인 소개를 하자면, 저는 노동대학원 인력관리학과 51기 졸업생 이준호이며 대한제강 총무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과 관련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선배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제일 잘하는 일은 남의 이력서를 잘 보는 거야. 반대로 제일 못하는 일은 자기 이력서를 쓰는 거지.”

이 말은 남의 이력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력도 꾸준히 관리하라는 뜻이었는데, 저는 아직 그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소개가 늘 어렵습니다.

2. 재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수업은?

제 대학원 생활을 관통하는 단어는 코로나와 온라인 수업이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사회와 회사에서 뭔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익숙하게 해오던 일이었지만, 이 일을 언제까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어렵게 입학했지만, 5학기 중 3학기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었습니다.

학교에 직접 간 적은 많지 않았지만, 갈 때마다 느껴지는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 힘을 받을 때마다 저도 조금 젊어지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잔디밭에서 피자와 맥주를 함께한 추억, 출장 중 숙소에서 줌으로 수업을 듣다 깜빡 잠들었던 일, 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줌으로 출석하고 대답하던 기억 등, 돌아보면 힘들었던 순간조차 모두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 바로 동기입니다. 인력관리학과 51기 동기는 6명.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지금은 참 편안하고 소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은 ‘형’, ‘오빠’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직급과 직책이 관계를 규정하지만, 대학원에서는 그런 것 없이 그저 동기로 묶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던 저도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중도에 멈추지 않고 함께 졸업한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금도 단톡방을 통해 자주 소통하며,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반가운, 그런 깊고 친밀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3. 다시 돌아가면 이것만큼은 꼭 했을 것 같다!

다시 대학원 생활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할까요?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아쉽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학교가 주는 여러 혜택—특히 도서관과 논문·자료 검색 권한—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진 동안 소중함을 모른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식도 많이 배웠고, 훌륭한 원우님들을 만나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업무를 하는 제게 다른 회사 인사 담당 원우님들과 노무사 원우님들은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connecting the dots처럼, 여러 방면에서 이어지는 도움과 인연을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4. 현재 하고 계신 일과 노대원 경험이 어떻게 이어졌나요?

현재 근무지는 부산입니다. 올 초부터 주말부부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3대가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다’고도 하더군요. 직접 해보니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일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다는 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회사에서 붙여준 별명도 있습니다. 바로 DKNY—‘독거노인’입니다.

혹시 부산에 오실 일이 있는 원우님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돼지국밥을 대접하겠습니다.

5.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마지막으로 재학 중인 원우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꼴, 꼴, 꼴”이라는 말을 남긴다고 합니다. 좀 더 베풀고 살길, 좀 더 용서하고 살길, 좀 더 재미있게 살길. 모두 후회 없는 대학원 생활을 위해 좋은 배움·좋은 관계·좋은 경험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PS - 만남의 밀도

저는 외향적인 성향이 아니어서 낯을 많이 가리지만, 대학원 모임 후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 가는 과정에는 밀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 명함을 주고받는 것, 악수하는 것, 식사하는 것, 술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만남의 횟수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밀도도 깊어집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두 번 만나면 반갑고, 세 번 이후엔 안 만나면 궁금해지는 것이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모임에 자주 참석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어설픈 글 작성한 자칭 낭만원우의 자기소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력관리학과 52기 김윤정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력관리학과 52기로 졸업한 김윤정입니다. 더로이그룹(The ROI Group) 대표로 HRD를 경영 인프라로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는 사회공헌재능기부단 단장과 테니스 동호회 KLTC 총무를 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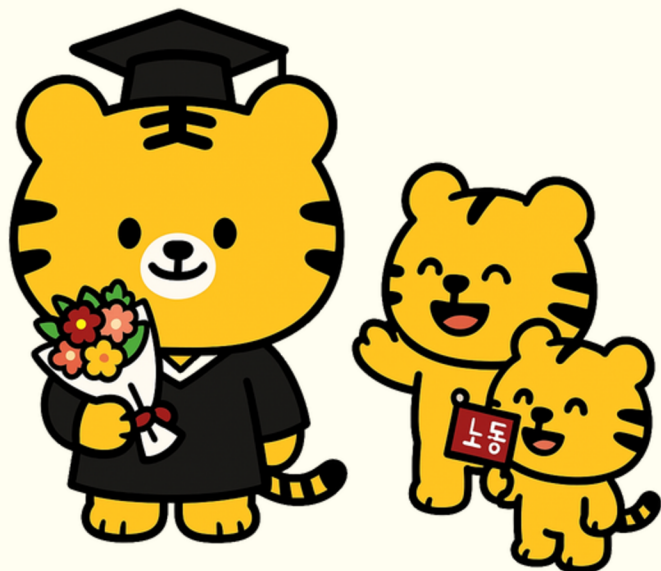
노동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저는 HRD라는 제 영역이 너무 좁게 느껴졌습니다. HRD를 더 잘하려면 HRM, 더 나아가 경영까지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커리어 개발 차원에서 입학을 결심했지요. 막상 공부해 보니 HRD와 HRM 사이에는 좁히기 어려운 거리가 있었고, 이를 수업과 원우들과의 교류 속에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거리가 어떻게든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졸업한 지금 돌아보면, 입학 후 긴 시간을 사유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생각이 조금 정리된 것 같습니다.

2. 재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수업은?

기억에 남는 수업은 박종희 교수님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입니다. 법학 베이스가 없는 제게는 변호사·노무사 원우님들과 함께 듣는 이 수업이 시작부터 무척 버겁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원우님들의 말하기·쓰기·발표·순발력 워낙 뛰어나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지요. 차라리 빨리 부딪혀 보자는 마음으로 두 번째 순서에 발표를 자청했는데, 정치외교학 전공이자 사회과학 학도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목차 구성으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떨리고 창피했던 순간이었지만, 교수님께서 요점을 정리해 주시고 흐름을 리드해 주신 것이 지금도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안종기 교수님의 <사회적 기업 개론> 수업도 특별했습니다. 제 실무에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주제였지만, 교수님이 온 열정을 다해 전달해 주시는 지식과 경험 속에서 언젠가는 사회적 기업과 같은 영역에도 관심을 확장해 보고 싶다는 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업의 연장선처럼 진행되었던 우이동 MT는 마치 대학 시절을 재현한 듯, 영원히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었습니다.

3. 다시 돌아가면 이것만큼은 꼭 했을 것 같다!

원우님들의 역량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더 자주 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해내기 어려웠던 아이디어나, 본업과 생활에 가려 미뤄 두었던 작은 시도들이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함께 해내며 얻는 반짝이는 기쁨이 결국 제게 가장 큰 보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현재 하고 계신 일과 노대원 경험이 어떻게 이어졌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HRD 컨설팅은, 대학원에서 배운 ‘노동·조직·거버넌스’의 시선과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원우 공동체 안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은, 각자가 이미 가진 역량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무대에서 펼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더로이그룹이 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무를 단순히 기술서로 정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KPI와 연결해 성과로 환류되도록 설계합니다. HRD가 ‘좋은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성과 전이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학원에서 원우님들의 재능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어 보려 했던 경험이, 지금은 기업 현장에서 직무·역량·성과를 하나의 루프로 묶어내는 컨설팅 모델로 확장된 셈입니다.

5.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원우님들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계십니다. 다만 렌즈를 조금만 틀어 보면, 본래 가지고 있던 역량이 훨씬 더 넓은 지점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함께하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고, 남들이 몰라줘도 스스로 즐거움을 얻는 작은 활동이 차곡차곡 쌓여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서 얻는 빛나는 순간들이 결국 오래 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 쓰는 리포트와 대화가 곧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이고, 작은 실행이 결국 커리어의 흐름이 된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노사관계학과 54기 황복연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노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사관계학과 54기 황복연입니다. 석사과정에 입학한 후로 54기 기수장, 제31대 총학생회장 그리고 졸업한 후로는 총교우회에서 현재 운영분과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 졸업하고 바로 노동학 협동과정에 입학하여 25년도 2학기 현재 노동학 박사과정 2학기를 보내면서 박사과정 원우회 부회장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AIA생명보험이고, 재직 중 노동조합에 출마하여 부지부장, 지부장을 거치며 민주노총 산하 2금융권인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에 당선되어 사무금융 교육원장, 외국계노조대책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노동조합 외에도 대외활동으로는 전태일재단 운영위원, 노회찬재단 정치학교 수료, 노회찬재단 6411사회연대 포럼 운영위원장 등 여러 사회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2. 재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수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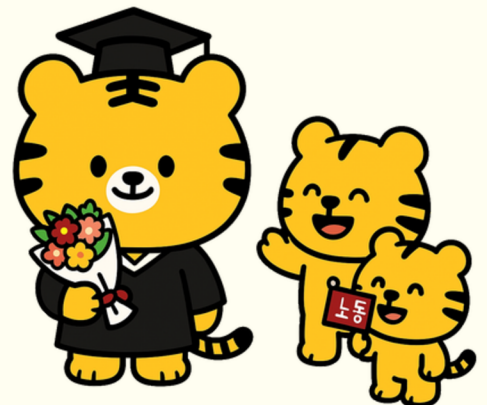
54기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줌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학과장, 기수장도 줌 소회의실, 전체 회의실에서 선출했습니다. 54기 첫 동기모임도 코로나19 모임 제한 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고 없이 잘 진행한 후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학기 중 월,화,수 3교시 부활에도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31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활동하면서 동호회의 공식적인 깃발을 세우는 동시에 현재의 HR제도연구회, 노동사건연구회도 발족하여 많은 원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미니학회 등의 기존의 활동을 계승 발전하여 노대원우포럼, 노동일타강사특강 등의 포럼과 세미나도 활성화시키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갑내기 양띠모임, 노대원 노동조합 등 테마모임도 만들어 활성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이론과 사례 수업을 통해서 외투계 기업 구조조정, 노무관리 이슈를 외투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관련 참여로 연결시켜볼 수 있었던 경험이 가장 의미가 컸습니다.

3. 다시 돌아가면 이것만큼은 꼭 했을 것 같다!

과거 활동 데이터를 질적, 양적 연구로 매 학기 축적했다라면, 과거 현장에 몸담았을 때 그 효과를 훨씬 더 가능하도록 만들어 볼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외투기업 규제와 고용안정 의제는 학제 간 연구로 더 키우거나 산학, 정책네트워크를 더 넓혀서 제도화 속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매우 큼니다. 학생회 활동 차원에서는 노동사건 관련하여 모의재판을 노대원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진행해보는 연중 기획 행사로 만들어볼 수 있으면 매우 의미가 크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추가로, 노동대학원 산하의 모든 과정의 연대, 연합하는 노대원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장기적인 노동대학원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 빨리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4. 현재 하고 계신 일과 노대원 경험이 어떻게 이어졌나요?

사실 지금은 노동조합을 떠나 현업에 돌아와 열일을 하고 있지만, 꼭 노동조합에 있어야지만 어떤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내부, 외부, 주변부의 일정한 활동들을 통해서 직, 간접적으로 함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틀 안에 갇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노대원에는 너무나 훌륭한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원우와 교우 한 분 한 분이 그 산실이며 증거입니다. 여전히 원우와 교우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으며,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로도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서 온전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들어와서도 제가 속한 보험산업과 관련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대가의 이론들과 여러 연구 내용들을 탐독하며 논문 방향을 좁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도, 연구도, 조직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어느 순간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학업과 현장은 반드시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문적 탐구가 현장의 힘이 되고, 현장의 경험은 학문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기록으로 남기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을 생활화한다면, 그 자체가 후배 기수에게 이어지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 자산이 다시 또 돌고 돌아 나 자신과 내 주변, 그리고 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던 노대원 안팎에서의 모든 활동과 기록들은 원우,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함께 고생해 주셨던 집행부와 많은 원우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애정 어린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3교시”가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책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크리에이티브와 인적네트워크의 향연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대원은 Never Ending Story이며, Endless Love입니다.



노사관계학과 55기 김철민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제32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김철민입니다.

현재는 LG이노텍에서 노경협력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노사관계 분야에서만 21년째 현장의 크고 작은 이슈들을 다루며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대학원에 다니던 시간은 제게 있어 단순한 학업의 연장이 아닌, 제2의 현장이자 더 깊이 있는 성장을 가능케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을 꼽자면, 총학생회 활동과 이를 통해 만들어낸 다양한 교류의 장입니다.

특히, 고려대와 연세대 노동대학원 간의 고연전, 학술 교류회, 그리고 수업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3교시' 활동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노동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고 각자의 현장에서의 고민을 나누는 깊은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들을 통해 저는 같은 길을 걷는 다양한 동료들을 만났고, 이들과의 교류는 제게 단단한 인적 네트워크이자, 살아있는 인사이트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모두 100% 활용하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더 많은 수업에 참여하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교수님들과 더 깊은 학문적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당장의 업무나 시간의 제약 때문에 미루고 지나친 순간들이 지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질문하는 용기'와 '연결되는 열정'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노경협력 업무는 늘 사람과 조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대학원에서 배운 다각도의 시각, 그리고 실천적 지식은 제 업무에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나 절차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노동의 본질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후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단지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각자의 현장과 학문이 교차하고, 삶의 고민과 노동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부디 수업 시간에 그치지 마시고, 수업 이후의 '3교시'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서로의 경험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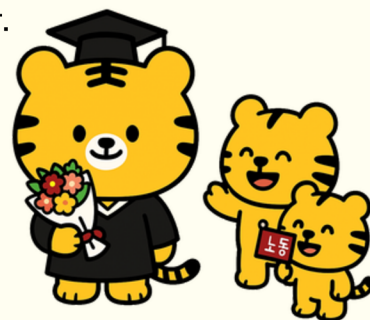
노동은 사람의 이야기이고, 사람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걸음도, 지금 충분히 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현장에서 다시 만나 함께 이야기 나눌 날을 기대합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25년도 제32대 총학생회장
김철민 드림



노동법학과 55기 강경필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동법학과 55기 강경필입니다. 2022년 8월에 입학하여 올해 2월 졸업 하였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남대문에 있는 롯데손해보험 인데요. 보직은 인사혁신실장입니다. 롯데손해보험 본사가 남대문 동쪽 옆 하얀색 빌딩안에 있는데요. 남대문 전경 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연락주세요.

2. 재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수업은?

우리 기수가 22년 8월에 입학했는데요. 22년 5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되었을 겁니다. 코로나 엔더믹은 23년 8월이었을 거구요. 그래서, 그 동안 억눌려져 있던 사람과의 만남, 그것도 학생으로서의 만남과 활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학교에 등교하고 하는 것 부터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학생회 휴게실에서 삼삼오오 모여 간식 먹고, 교수님, 선후배동기들과의 3교시, 4교시, 5교시..., 축제주점, 학생회 MT, 고연전, 총학생회장 선거유세, 심지어 교실에 모여 치루었던 각종 시험, 오프라인 레포트 발표 등등 학부 1학년 신입생때 같이, 신기하고 재밌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군대 갈 일도 없으니까, 더 즐거웠고요.)

3. 다시 돌아가면 이것만큼은 꼭 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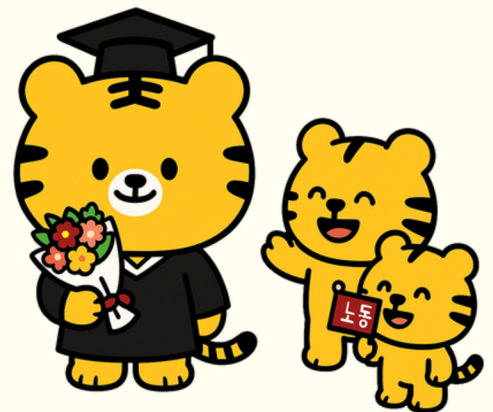
다시 재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박사과정에 도전하거나 해외연수를 가 보고 싶습니다. 마침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생겼더라구요. 다시 회사원으로서 일상만 살아가다 보니, 박사과정에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나질 않네요. 쇠뿔도 당김에 빠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4. 현재 하고 계신 일과 노대원 경험이 어떻게 이어졌나요?

졸업식 때, (주)LG 사장님이신 하범종 사장께서 축사를 해 주셨는데, 소름이 돋으면서 축사가 정말 뇌에 각인 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사장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야겠다 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연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영광과 자부심의 훈장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사장님의 명연설은, 유튜브에서 고려대학교 제118회 학위수여식을 검색해 서 46분 25초~1시간 2분 25초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활인으로서 갑자기 불안해지곤 할 때, 하사장님의 말씀을 떠올리려곤 합니다. 이처럼 노동대학원의 경험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신뢰 자산” 으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오늘이 우리 모두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그 땐 더 늙은 내가 그 상황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한시간이라도 젊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Just Do It.
다시 돌아오지 못할 시간. 마음껏 즐기십시오.



인력관리학과 56기 박진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봄학기에 인력관리학과로 입학하게 된 56기 박진이라고 합니다.

지난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은 하게 되었는데, 졸업식이 내년 2월이어서 아직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침 현재 하는 일은 태양광 및 LNG를 다루는 에너지업과 AI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도시를 조성하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BS그룹에서 그룹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재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수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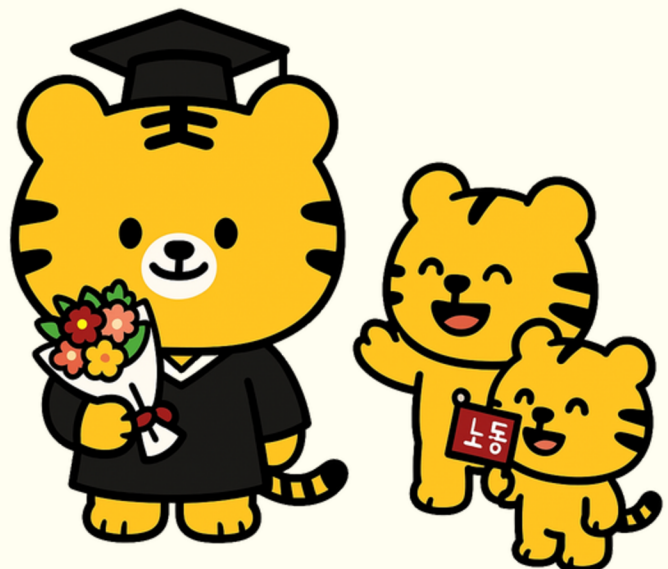
뭐니뭐니 해도 정말 많은 업계(행정, 입법, 사법과 같은 정부 및 공공기관,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특별한 사고와 선한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 훌륭한 원우님들과의 만남 자체가 가장 기억에 남는건데, 노동대학교 입학 자체가 그 의미부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수업외적으로도 원우님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학생회 활동들도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데, 신입원우님 입학식 및 환영회, 매월했던 작노밤 그리고 HR제도연구회, 고연전, 학생회 MT 등등 나름 대학원 생활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수업도 너무나 많아요! 사회현상에 대한 구조적 분석의 틀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던 안종기 교수님 수업, 사고의 논리적 흐름과 정연함을 장착하시고, 저렇게 높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하경효 교수님 수업, 정말 많은 논문을 정독하게 하신 힘듸는 있었지만, 학문의 깊이를 고민하고 고뇌하게 해주신 김윤호 교수님,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의구심과 사고의 틀에서 더 넓은 사고를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신 권혁 교수님과 이상익 교수님, 창의적 생각과 논리적 정당성을 장착하게 해주신 이목화 교수님! 너무 많나요?! 여튼 생각하기 또는 받아들이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늦은 시간 학교에 와서 교수님들께 뭐라고 배워볼려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3. 다시 돌아가면 이것만큼은 꼭 했을 것 같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열심히 수업에 참석했고, 좋은 원우님들과 함께해서 다 좋았습니다!

좀 더 많은 원우님들과 함께하는거 외에는 없지만,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더 열심히 대학원 생활하는거입니다!

ㅋㅋ



4. 현재 하고 계신 일과 노대원 경험이 어떻게 이어졌나요?

BS그룹에 합류한지는 8년정도 되었고, 인사 업무도 처음하게 되었습니다. 첫회사였던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는 전략기획, 재무기획 업무만 했었기 때문에 인사노무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가 없었기에 때문에 전문 역량과 지식함양을 위해서 노대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년 반이라는 노대원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비포 에프터가 확연하게 달라졌는데, 학문적인 깊이야 지금도 얕지만, 훌륭한 교수님, 정말 더 훌륭하신 많은 원우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인사노무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5.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지금 재학생 원우님들께 주어진 노대원에서의 시간은 두번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자기만의 목표와 목적이 명확하시다면 그리고 향후 인생의 설계하시는데 있어서 그 방향성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노대원에서의 공부, 교류, 놀이 등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은 훌륭한 무형자산을 만들 수 있으시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좋은 교우 관계가 형성할 수 있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노대원에서의 시간 알차게 잘 보내시길 바라요^^



노동복지 정책학과 56기 박소현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복지정책학과 56기 박소현입니다! 본업은 노무법인 라움을 운영하고 있고 주로 인사노무 컨설팅이나 기업자문을 하고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총학생회를 도와 '고연전'과 '캠퍼스투어'를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수업도 열심히 들었지만 정말 제일 열심히 놀았던 1인으로서 노동대학원을 가장 잘 즐긴 졸업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열심히 놀다가 동기와 결혼하고 유부녀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미혼 원우분들 응원합니다!)

2. 재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수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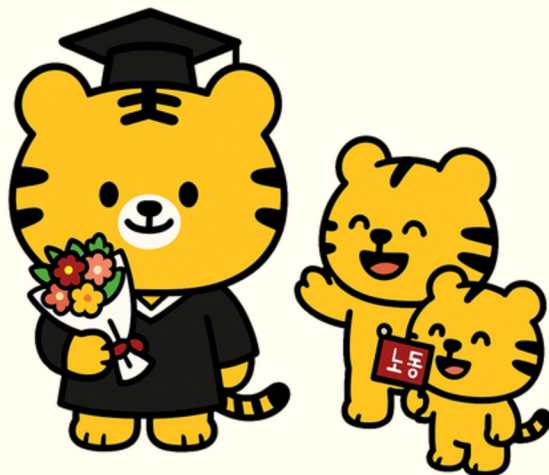
저는 단연 '고연전'활동이었습니다. 제가 빠른 연생이기도 하고,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작은 노무법인에 있다 보니 큰 조직에 소속감을 느끼는 경험이 다소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 '고연전'을 참여했었고 원우분과 함께 크림색 옷을 입고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소속감과 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우분들도 자녀분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도 인상깊었고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작노밤'을 통해 서로 교류했던 것이 너무 인상깊은데요. 특히 작노밤을 하면서 다양한 참여를 이끌기 위해 컨셉을 잡고 진행했던 '00년대생 모임' 기획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때 90년대생 모임을 만들고 이후 몇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금방 친해지기도 하였고 또 그렇게 친해진 원우분들과 학교를 넘어서서 다양한 교류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작노밤에서는 정말 또다른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 수 있으니 꼭 참석해보세요!

마지막으로는 '노동정치론'MT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당시 수강하던 원우분들과 교수님의 마음이 맞아 수강생들 중 일정이 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서울 근교로 MT를 갔습니다. 바베큐를 구워 먹고 여러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 이후로 함께 수업을 들었던 원우분들과 자주 소통하며 끈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꼭 해당 수업이 아니더라도 수업 후 책걸이라도 교수님과 함께 해보세요! 강의실에서 보실 수 없는 매력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 다시 돌아가면 이것만큼은 꼭 했을 것 같다!

사실 그 누구보다 너무 열심히 놀았기에 아쉬울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신입생 환영 MT를 못갔더라구요. 저희 때에는 없었지만 올해부터 신입생 환영회를 1박 2일로 진행했는데 하필 그날 다른 일정과 겹쳐서 신입원우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거의 마지막 학기 때에는 개인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대학원 원우분들과 주 3일 함께했었던 과거와 달리 주 1일 3교시도 빠듯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졸업을 앞두고서야 원우분들과 친해지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참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였지만 '작노밤'을 통해 가끔 찾아뵙려고 합니다! 졸업했다고 모른척하시면 저 섭섭해요!!!



4. 현재 하고 계신 일과 노대원 경험이 어떻게 이어졌나요?

저는 노무법인을 다니다가 22년 3월부터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벌써 4년차가 되었네요. 노대원을 다니면서 노무법인과 함께 점점 성장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표 노무사가 되면 자율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려면 전문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업무적인 고민을 함께 나눌 멘토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노대원에서는 수업을 들으면서 실무적으로 고민했던 지점을 단순히 노무사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 노조, 공무원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정말 주저없이 연락해서 여쭙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노동대학원 56기 박소현입니다! 라고 연락을 드리면 정말 노대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이 알려주시던 원우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쭙보세요. 노대원에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5.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저는 노대원을 다니면서 다양한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노대원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전공이 아닌 수업도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노대원을 입학하기 전 석사 전공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노동법을 전공하는 것이 좋을까, 경영학을 전공하는 것이 좋을까 아마 많은 원우분들께서도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노대원에서는 학과와 상관없이 타과의 수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융합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워보이는 수업도 꼭 들으세요! 강제로 고민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잘 없잖아요! 어렵지만 꼭 공부해야하는 과목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학교의 좋은 기회를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도서관 홈페이지가 바로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즐길 수 있을 때 도서관, 열람실, 논문 검색 충분히 즐기세요! 갤럭시캠 퍼스 스토어도...아쉬워지네요 꼭 재학시절 혜택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원우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놓치지 않고 그 순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노밤에서 만나요!

